

올 KLPGA 투어 '난형난제'

14-16일 올 시즌 반환점 대우위니아 MBN 여자오픈 박현경·이소영·김효주 등 출동... 개인 타이틀 치열 일본 무대 활약 신지애도 출전 "부담감 반 설렘 반"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막을 올려 중반에 접어든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선 '절대강자'가 떠오르지 않는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2년 차 박현경(20)이 첫 대회이자 메이저대회인 KLPGA 챔피언십을 제패하고 지난달 신설 대회인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유일하게 '다승'을 거뒀고, 상금에서도 4억5557만원으로 선두를 달린다. 그러나 대상 포인트에서는 이소영(23)이 가장 많은 300점을 쌓았고, 최혜진(21·236점), 임희정(20·206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소영과 최혜진은 각각 9개와 8개 대회에 출전해 한 차례만 빼고 톱 10에 이름을 올려 톱텐 피니시율 1~2위로 꾸준함을 뽐내고 있다.

평균 타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 머물며 KLPGA 투어에 출전 중인 '부활한 천재' 김효

주(25)가 1위(68.4286타)에 올라 있다.

이번 가운데 14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포천의 대우몽베르 컨트리클럽(파72·6525야드)에서 열리는 대우위니아 MBN 여자오픈(총상금 7억원)은 반환점을 맞이하는 대회다.

5월 KLPGA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올해 10번째 대회인데, 이 대회를 치르고 나면 현재 일정상으로 2020 시즌은 9개 대회가 남는다.

주도권을 잡으려는 선수들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번 대회엔 박현경을 필두로 이소영, 김효주 등 각종 개인 타이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강호들이 총출동한다.

직전 대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무서운 신예' 유해란(19)의 2연승 도전도 주목된다. 신인상 포인트 1055점으로 조혜림

(692점)에 큰 격차로 선두에 오른 유해란에게는 우위를 더 공고히 할 기회다. 유해란은 "세컨드 샷에 신경 쓰며 버디 기회를 늘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들 외에 시즌 1승을 보유했던 김민선(25), 김지영(24) 등도 '다승'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 '전관왕' 최혜진, 지난해 3승을 올린 임희정, 디펜딩 챔피언 박민지(22) 등은 올해 첫 우승을 노린다. 박민지는 "타이틀 방어의 부담감이 있지만, 도전하는 자체가 값진 기회인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무대에서 활약해 온 신지애(32)도 '동갑내기' 이보미, 김하늘 등과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려 모처럼 국내 대회에서 기량을 뽐낸다.

국내에서 21승을 보유했던 신지애가 KLPGA 투어 공식 대회에 출전하는 건 2018년 9월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이후 거의 2년 만이다.

"부담감 반, 설렘 반"이라고 소감을 밝힌 신지애는 "코로나19와 비파해로 많은 분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희망과 힘을 드리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연합뉴스



"청룡기 우승"... 환호하는 장충고 1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75회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결승전 장충고와 광주동성고의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장충고 선수들이 경기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25일부터 더블헤더 조기 시행

KBO "우천 취소 경기 많아 경기 재편성 논의해 확정" 올시즌 비 때문 44경기 취소

KBO가 결국 8월 말 더블헤더 조기 시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례없이 긴 장마에 우천 취소 경기가 급증하자 후속기에 더블헤더를 치르지 않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KBO는 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6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정규리그 취소 경기 재편성 시행계획 변경을 논의했다. 그 결과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더블헤더 편성을 일주일 앞당겨 이달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경기부터 우천 취소 시 다음 날 더블헤더(특별 서스펜디드 경기포함)를 우선 시행하고, 이동일인 경우 동일 대진 둘째 날에 더블헤더로 편성된다. 또한, 기존에 취소된 일부 경기와

11일부터 취소되는 경기는 9월 1일 이후 동일 대진 둘째 날에 더블헤더로 편성하기로 했다.

기존 취소 경기의 더블헤더 편성 일정은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KBO 사무국과 각 구단은 선수들의 체력 유지를 위해 7~8월 후속 시기에는 더블헤더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우천 취소되는 경기가 급증, 시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자 8월에도 더블헤더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까지 올 시즌 예정된 경기의 11%가 넘는 44경기가 취소됐다. 연합뉴스

제주Utd 프로축구 K리그2 '1위' 눈앞

10일 홈경기서 충남아산에 2-1 승... 선두와 1점차



제주와 아산 선수들이 킥오프에 앞서 수비수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주Utd 제공

제주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충남아산 FC를 제압, 리그 3위로 올라섰다.

제주는 지난 1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0 14라운드 충남아산FC와의 안방 경기에서 공민현과 임동혁의 연속골에

힘입어 2-1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로 승점 3점을 추가한 제주(24점)는 3위로 한 계단 뛰어올랐다. 특히 선두 수원FC(25점)와의 격차는 단 1점이며, 2위 대전하나시티즌(24점)과는 승점은 같지만 골득

실에서 3골 뒤져있는 상황이다.

최근 2경기에서 승리가 없던 제주는 4-3-3 전형으로 나섰다. 임동혁을 중심으로 공민현과 이규혁이 최전방에 위치했고 이창민, 김영욱이 중원을 지켰다. 측면 수비수인 안현범이 전진해 정우재와 짝을 이뤄 백스리 형태로 움직였다. 수비진은 정운, 백동규, 김오규가 꾸렸고 오승훈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안방 팀 제주가 경기내내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 35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이규혁의 패스를 받은 공민현이 침착한 마무리를 선보이며 리드를 잡았다. 이어 후반 22분 강운성이 내준 공을 임동혁이 가볍게 마무리하며 차이를 더 벌렸다.

충남아산도 추격에 나섰다. 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무야키치가 머리로 제주의 골망을 갈랐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은 킥오프를 앞두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민들에 위로의 뜻을 전하는 '두 손 모아'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송은범기자

이강인, 발렌시아 프리시즌 합류

이강인(20·사진·발렌시아)이 소속 팀인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의 프리시즌 훈련 첫날부터 합류해 팀 잔류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발렌시아는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시우다드 데 포르티바에서 2020-2021시즌 준비를 위한 프리시즌 훈련이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이강인은 지난달 20일 세비아와 2019-2020 프리메라리가 최종전을 치른 뒤 입국해 국내서 짧은 휴식을 취한 뒤 최근 스페인으로 복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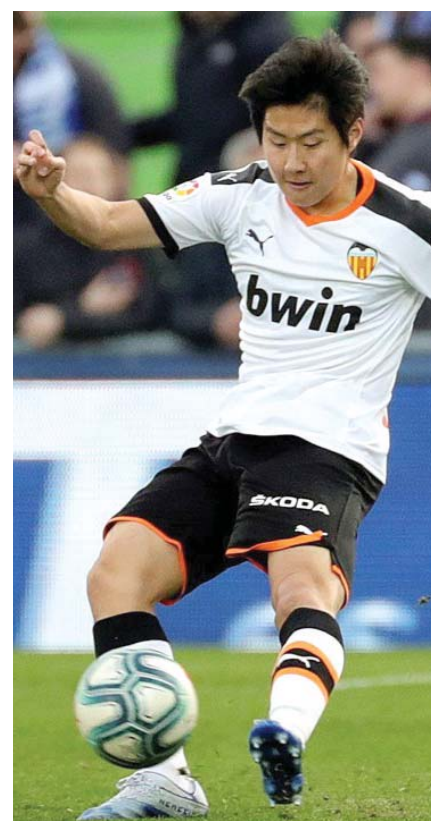
이강인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17경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5경기, 코파 델 레이(국왕컵) 2경기

등 24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선발 출전은 정규리그 3경기, UCL 1경기, 국왕컵 2경기뿐이었고, 득점은 총 2골(정규리그)이었다.

2022년까지 발렌시아와 계약된 이강인은 올 시즌 출전 기회가 적어 이적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가운데 발렌시아는 지난달 28일 하비에르 그라시아(50·스페인)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영입하고 새 시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그라시아 감독은 능력 있는 젊은 선수들의 기량을 약속만큼 그동안 앞선 사령탑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이강인의 팀 내 입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축합격 건축사

현우준
(주)가에인 대표

건축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제1회 동문 일동

축승진 경기 용인 죽전중학교 교장

정숙경
(부: 故 정기량 · 모: 故 김화선 사녀)
위미중 7회, 서귀포여고 19회
제주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졸업

경기 용인 죽전중학교 교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언니 숙자·숙열

축입관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현소진(만 28세)
(부: 현봉도 · 모: 오애숙)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5회 표선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오창순 의회원 일동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